

영성 독서모임 "로고스를 입다"

갈라디아서; 복음을 만나다

- 팀티머시 켈러 지음 / 김성웅 옮김 -

3. 하나인 복음

갈라디아서 2:1~10

2016. 04. 09(토)



[갈라디아서; 복음을 만나다]

3. 하나인 복음 (갈 2:1~10)

바울의 조바심

- *다른 서신과는 다른 바울의 반응(초조함).
- *건전한 복음으로 교회를 세워야 함.
- *거짓 주장들을 뿌리뽑아야 함.

- ①하나님으로 받은 "계시를 따라" 올라감.
- ②복음의 확신 有 14년을 기다림.
- ③ 자신도 변했다면, '바울'까지도 배척해야 한다고 함.

(왜 올라갔는가)

사실이 달린 문제

- *바울은 복음은 모든 문화의 사람들을 위한 것.
- *반대파는 유대관습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
- *바울은 장대 끝에 매달린 것 같은 위기.
- *두 대척 세력으로 둘로 갈라질 위기.

<위협받고 있는 것>

-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
- *복음의 진리

(참된 교회의 통일성)

결 정

- *'디도'에 대한 입장.
- *거짓파 → 할례 주장.
- *예루살렘 사도들 → 할례를 고집하지 않음.
-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음.
- *구원에 필요한 것은 관행, 의례가 아닌 믿음이라는데 합의함.
-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인가의 문제, 그를 위해 무엇을 하는가가 아님.

(환 영)

결 과

- *바울은 "노력해서 구원을 얻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것이라고 함.

복음은

- ①문화적 자유로 이쁨.
 - 문화적 편협, 편견의 태도가 아닌
 - 영적인 가치 중요.
- ②정서적이 자유를 줌.
 - 도덕법에서 자유로움.
 - 십계명을 지키라는 이유와 동기가 다름.

(자 유)

더 나아가

진짜
하나 됨의
표지
두 가지

①

- ▶ 문화와 인종적인 배경과는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어떤 사람도 받아들임.
- *그리스도인의 하나 됨은 문화적 차이에 매이지 않음.
- * 복음을 믿는 믿음에 무언가를 더 올려놓으려고 고집해서는 안 됨.

②

- ▶ 각자 은사가 다름을 인식하는 것임.
- * 베드로, 바울 '같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 방법이 다를 수 있음.(다른 은사와 능력)
- * 복음의 정수는 그대로 간직하면서, 각기 사람들에게 맞게끔 복음을 전할 수 있음.
- * 관심사에 맞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거나, 너무 바껴서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됨.

세 번째
표지에의
도전

③

- ▶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 하는 것 임. (하나 됨의 근본 요소)
- * (이유1): 일반적 = 가난한 자를 위한 구제가 성경에 늘 강조됨.(예수님의 모범, 집사직분...)
- 바울은 구제를 하나님의 뜻의 일부라고 생각했음. 돌봄. 더불어 하나 됨.
- * (이유2): 특별한 = 유대 교회들이 이방 교회 보다 가난했음.(가진 것을 나누며 하나 되야 함)

<하나 됨의 한계>

- ▶그리스도인들을 분열 시키는 것에 집중하면서, 오히려 신자의 하나 됨을 무시해 버릴 수 있음.
- ▶바울이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과 한 교회에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회동이 이루어졌음.
-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초는 그리스도와의 사귀이며, 복음을 양보하면서까지 하나됨을 주장해선 안 됨.
- ▶우리가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속하게 된 자유를 만끽하고, 국경이나 문화적 경계에 상관 없이 하나됨을 즐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임. → 하나님께서 바울의 등을 떠밀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신 이유.

■ 사도들 간의 협력 = 복음 진리의 공유에 바탕을 둬 ■

(바울, 그의 동료들 &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친교의 악수"는 우의, 협력, 인증의 표지임.

복음의 하나됨을 세움으로써 하나 됨의 경계선 역시 세웠음. (거짓 형제들을 경계선 밖으로 몰아냄)

갈라디아서; 복음을 만나다

티머시 켈러 지음 / 김성웅 옮김

3. 하나인 복음

(갈라디아서 2:1~10)

갈라디아서 2:7~8

7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레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레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8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레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Key Word]:

“계시를 따라”, 확신, 거짓 주장, 건전한 복음, 문화, 관습, 내적인 믿음, 외적인 행위, 자유, 복음의 진리, 행실, 의례, 영적 정결, 인생의 도리, 구원의 방편, 각자의 은사, 하나 됨, 협력, 복음 진리의 공유, 경계선

바울 당시의 예루살렘 회의장의 장면은 21세기 그리스도인의 관심사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회의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고, 하나님은 이날도 역시 당신과 나, 우리 모두를 지켜주셨다.

■ 바울의 조바심 : 왜 올라갔는가 ■

▶왜 올라갔는가? “계시를 따른”것 이지만, “헛되지 않게” 하려는 마음 때문임.(2:2)

▶자신이 제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확인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그것은 몇 가지 이유에서 맞지 않음.(바울의 복음 전파가 다른 사람의 인증이 필요 없었던 이유)

①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음.

- 그는 자신 앞에 나타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복음을 받았음.(1:12)
-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임.

② 복음의 확신이 없는 상태였다면, 예루살렘을 향하는 데, 14년을 기다릴 이유가 없었음.

③ 바울은 만약 자신이 복음에 관한 생각을 바꾸었으면, 바울까지도 배척해야한다고 말함.

▶바울의 확신을 흔들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가 맺어야 할 많은 열매를 흔들려 대는 것들이 있었음.

▶거짓 선생들이 바울이 예루살렘 원조 사도들에 비해 부적절하고, 함량 미달이라고 갓 믿은 신자들을 흔들었음.

- “믿기만 하면 된다.”는 바울의 메시지를 유별난 것이라 주장함.

- ▶ 바울은 이러한 거짓 주장을 뿌리 뽑지 못하면, 건전한 복음으로 교회를 계속 세워나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달음질하는 것이나 달음질한 것이 헛될까” 조바심을 내는 것임.
- ▶ 바울은 예루살렘 사도들이 이 복음에 충실하지 않을까 염려했음.
 - 예루살렘에서 거짓 교사들을 막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문화적인 편견을 용인했던 것 이기에 위험한 주장이 이어지는데 힘이 되었던 것으로 보임.

■ 사할이 달린 문제 : 참된 교회의 통일성 ■

- ▶ 바울의 입장:
 -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은 모든 문화의 사람을 위한 것임.
- ▶ 반대파:
 - 비유대인들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만, 반드시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야 함.
- ▶ 예루살렘 사도들의 입장이 중요한 이유.
 - 서로 다른 편을 용인할 수 없었을 것이며, 두 대척 세력은 둘로 갈라졌을 것임.
- ▶ 예루살렘 사도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자세히 들여다 볼 기회가 없었기에 이런 현안을 지나치기 쉬웠음.
- ▶ 바울이 장대 끝에 매달린 것처럼 위기를 느끼며 초조했던 것은 거의 다른 각각의 종교로 나아가는 초기 단계일 수 있기 때문임.
- ▶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2:4). 나아가 “복음의 진리”(2:5)가 위협 당하고 말하고 있는 이유.
 - 그리스도를 믿는 내적인 믿음에 외적인 행위를 더해야 하는지 아닌지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 앞에서 서로 적대적 입장을 보이는 두 대척 세력이 있었기 때문임.

■ 결정 : 환영 ■

- ▶ 헬라인 ‘디도’: 혈통적으로 할례를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
 - ▶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은 디도가 구원을 받으려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더불어, 할례 등 유대 율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함.
 - 바울은 디도를 놓고 다른 사도들 앞에서 구체적인 테스트를 거쳐야 했음.
 - 예루살렘 회합은 관념적인 토론의 장이 아니라,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중요한 장면임.
 - ▶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예루살렘 사도들은 “구체적은 행동”으로 위기를 돌파함.
 -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2:3).
 - ▶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2:6).
 - 외모는 우리의 행동을 포함하며, 내면의 것은 우리의 존재와 관련 있음.
- ★기독교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의 문제이지, 내가 그를 위해 무엇을 하는가가 아님.

- ▶ 예루살렘 사도들은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어떤 관행이나 의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오롯이 믿는 믿음이라는 데 합의했음.
 -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결정적.
- ▶ 율법은 철폐되거나 대체된 것이 아니라 완성된 것임.
 -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설 수 있음.(골 1:22)
 -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심.(막7:14~19, 요13:2~11)
- ▶ 사람은 어떤 행실이나 의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정결해지고 받아들여짐.

■ 결과 : 자유 ■

- ▶ 거짓 형제들:
 - 이방인 신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자유”를 훼방하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였음.
- ▶ 바울:
 - 바울은 성경의 복음이 자유를 주는 반면, “노력해서 구원을 이루라”는 적대자들의 메시지는 사람을 노예로 만들 뿐이라고 말함.
- ▶ 그렇다면 복음은 어떻게 자유를 선사하는가?
 - ① 우리를 문화적 자유로 이끄는.
 - 구원이 규칙을 지키는 일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세부적이고 수행 가능한 규칙들을 요구 할 것임.(술 마시지 말아라, 이런 음식은 먹지 말아라 등...)
 - 이런 규칙, 규정들은 문화적인 영역에 속한 것임.
 -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얻는다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지 않고는 신자가 될 수 없을 것임.
 - 영적인 가치보다 문화적인 고유함을 앞장세우는 것은 편협하고, 편견에 가득 찬 태도를 부추기며, 문화적 “세련됨”과 “적합함”을 맹종하게 함.
 - ② 복음은 정서적인 자유를 줌.
 - 하나님과의 관계가 도덕적인 행위에 달려있다고 믿는 사람은 죄책감과 불안에서 헤어날 수 없음.
 - 인생의 도리인 도덕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의 방편으로 여기는 도덕법에서는 자유로움.

-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음을 아는 자유와 안전 가운데서 순종하고, 감사함과 자유로움 가운데서 순종함.
- 바울과 거짓교사들 모두 십계명을 지키라고 했으나, 그 이유와 동기는 완전히 달랐음. 우리가 복음의 은혜에 감사하는 동기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노예일 뿐임.
- 복음은 문화적, 정서적으로 자유를 주지만, “다른 복음”은 이것 모두를 파괴함.

묵상을 위한 질문

1. 내 행위가 내 구원에 영향을 준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가? 무엇 때문이었나?
2. 내게 익숙한 문화와 교육 환경이 “세련”되고 “적합”하다고 가르쳐준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인가? 어떻게 이것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더하여야 할 것으로 격상시켰는가?
3.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죄책감이나 불안을 느끼는가? 만약 그렇다면, 자신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보고 있다는 뜻인가?

더 * 하나인 복음

나아가

■ 진짜 하나 됨의 표지 두 가지 ■

▶ 신자의 진정 하나 됨은 어떤 모습일까?

① 문화와 인종적인 배경과는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2:4)” 있는 그 어떤 사람도 받아들인다는 의미임.

- 그리스도인의 하나 됨은 문화적 차이에 매이지 않고, 문화적 유사성에 휘둘리지 않음.
- 복음을 믿는 믿음에 무언가를 더 올려놓으려고 고집 부려서는 안 됨.

예) 구원 받으려면... 예정론적 신앙, 그 교회에 소속되어야 함, 알코올 금지, 방언...

(말로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받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구별된 점들을 가지고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하는 것임.)

② 각자의 은사가 다름을 인식하는 것임

- 베드로와 바울이 “같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 방법이 다를 수 있음을 알았음.
- 복음의 정수는 그대로 간직하면서도, 제각각인 사람들에게 맞게끔 복음을 다르게 전할 수 있다는 뜻임.
- 만약, 사람들의 관심사에 맞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거나, 혹은 복음을 너무 바꿔서 그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그들을 복음이 주는 기쁨과 자유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임.
- 보수주의, 율법주의 (변화불가) & 자유주의(보존 불필요)는 복음을 위협할 수 있음.
- 사도들은 복음의 메시지와 그것에 합당한 생활을 지켜나가면서도, 전파하는 수단을 적절히 바꿀 준비도 되어 있었음.

■ 세 번째 표지에의 도전 ■

③ 그리스도인의 하나 됨은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는 것임.

- 베드로와 바울은 각기 다른 선교지로 부르심을 받았으나, 공통된 것은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부탁은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음.

▶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는 것이 왜 그리스도인들의 하나 됨에 근본적인 요소일까?

- 두 가지 이유가 있음:

i) 특별한 이유:

- ☞ 유대의 교회들이 바울이 개척한 이방 교회들보다 훨씬 가난했다는 것임.
- ☞ 이방 교회와 유대 교회가 서로 가진 것을 나누면서 긴밀하게 이어져야 한다고 호소함.

ii) 일반적인 이유:

- ☞ 구제가 성경에서 늘 강조되고 있다는 것임.
- ☞ 예수께서는 완벽한 모범을 보여주심.
- ☞ 말씀과 훈련 사역만큼이나 교회에 당부하신 의무임을 뜻함(롬6:1~7).
- ☞ 바울은 구제를 하나님의 뜻의 일부라고 생각했음.
- ☞ 그리스도인은 가난한 자들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야하며, 그들을 돌봐야 함.

■ 하나 됨의 한계 ■

- ▶ 그리스도인들을 분열 시키는 것에 집중하면서, 오히려 신자의 하나 됨을 무시해 버릴 수 있음.
- ▶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초는 그리스도와와의 사귄이며, 복음을 양보하면서까지 하나 됨을 주장해선 안 됨.
- ▶ 우리가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속하게 된 자유를 만끽하고, 국경이나 문화적 경계에 상관없이 하나 됨을 즐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임.
→ 하나님께서 바울의 등을 떠밀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신 이유.
- ▶ 사도들 간의 협력 = 복음 진리의 공유에 바탕을 둬
 - 바울 &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친교의 악수”는 우의, 협력, 인증의 표지임.
 - 복음의 하나 됨을 세움으로써, 하나 됨의 경계선 역시 세웠음.
(거짓 형제들을 경계선 밖으로 몰아냄)

묵상을 위한 질문

1. 복음의 하나 됨을 충분히 장려하지 않는 교회들 혹은 복음의 진리를 희생하면서 까지 제도적인 하나 됨을 추구하는 교회들의 사례를 들 수 있는가?
2.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2장 10절을 읽으면 격려가 되는가, 아니면 부담되는가?
3. 나는, 우리 교회는, 주변 문화에 복음을 지나치게 적응시키려고 하는가, 아니면 지나치게 별개라고 생각하는가?